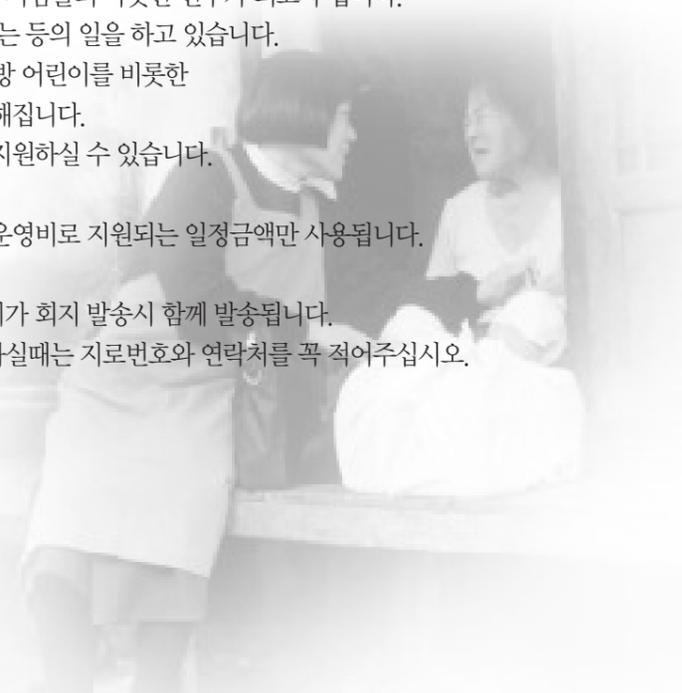


##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 ▶ (사) ‘사랑의 친구들’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권존중, 평화증진,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사) ‘사랑의 친구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원은 공부방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 ▶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여러분의 지원은 후원사업에 100퍼센트 쓰입니다. 소수의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일정금액만 사용됩니다. (회원서 작성시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 회비 납부방법으로 지로를 선택하실 경우 지로용지가 회지 발송시 함께 발송됩니다.
- ▶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하실때는 지로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십시오. (지로번호 : 6955942)
- ▶ **회비 납부계좌** (예금주: (사) ‘사랑의 친구들’)
  - 사업후원 : 외환은행 211-13-07835-6  
한미은행 531-00455-245
  - 운영후원 : 한미은행 531-00437-243
  - 문의전화 : (02)777-50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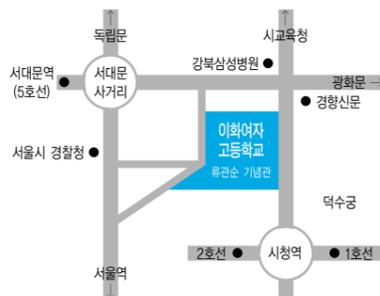
##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굶고 있는 어린이가 17만명!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98년 8월 창립된 (사) ‘사랑의 친구들’은 이들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을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엽니다. 올해로 일곱번째 바자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때  
세상은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의 바자 한마당’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4년 9월 18(토) ~ 19(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 소 :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
- 후 원 :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나라사랑 어머니회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6-11  
서울빌딩 520호  
Tel : (02)777-5075-6  
Fax : (02)778-0177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4년 6월 / 통권 제 16호



## 5월의 장미처럼 해맑게 웃는 행복한 어린이만 있는 나라로

민병준 (‘사랑의 친구들’ 이사,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5월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기저기 만개한 꽃들 속에서 ‘괴연 계절의 여왕답구나’ 감탄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해맑은 얼굴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옛날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세대와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참 풍요롭게 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광경 속에서라면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지금도 수만 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믿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지난해 빈곤아동의 수가 대략 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 예산은 전체의 0.99%에 그친다는 보고는,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쇼핑몰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와는 정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의 절대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절감케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정책보다는 여러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경제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20.8%)’보다는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78.4%)’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문제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에만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에만이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탄핵 기간 후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힘을 써 달라고 요구하기가 민망하다.

하지만 경제문제 해결의 연계선상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우리 기업 살리기’에 둔다면 의외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복지 문제까지 개선 가능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정부정책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우리 ‘사랑의 친구들’이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문제도,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도 크나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문제가 없을 만큼 가계수입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뒷받침되어,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보장받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탐스러운 장미송이를 보고 있자니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듯 하다. 이 땅에 해맑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단 한명도 없는 그날을 꿈꾸며 5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 “이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사) '사랑의 친구들' 이 매년 지방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가 올 해로 5번째를 맞이했다. 올해의 초청 어린이들은 경남과 전남의 공부방 어린이들로, 5월 6일~8일(금), 2박3일간 81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대된 공부방은 동광양평화, 예담, 선유샘, 주봉, 새부산, 대신, 대성, 예술, 사랑 공부방 총 9개. 어린이들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숙식을 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달하는 크레파스, 줄넘기와 축구공, 썬캡 모자, 가방 그리고 '사랑의 친구들' 이 마련한 티셔츠 등을 선물로 받았다. 3년간 어린이 초청 행사를 후원해준 서울 올림픽 파크텔 손동호 사장에게 본 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6일 도착한 어린이들은 연세대 레크레이션 팀과 새로 만난 다른 공부방 친구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회장은 환영의 말에서 어린이들에게 추억에 남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행사입장료 전액 등을 후원한 나라사랑 어머니회에서 이희숙 서울지부 총무, 지희순 LA 지부 회장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환영했다. 7일에는 푸레주르의 제빵사들과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었으며 주라기 공원, 전쟁기념관을 관람했다. 마지막 날인 8일은 에버랜드에서 하루종일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원을 구경하였으며, 낮선 음식과 풍경을 즐긴 어린이들은 많은 추억을 안고 떠났다.

다음은 이번 방문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연세대 레크레이션팀과 함께

- 춤도 추고 선물도 받아서 좋았다.
- 심심했고 추억이 별로 없었는데 추억을 많이 가진 것 같다.
- 호빵언니와 함께 놀아서 즐거웠다.
- 움직이고 하니깐 즐거웠다.
-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 재미있고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주셔서 더 재미있었다.



◀ 연세대 레크레이션팀과의 즐거운 놀이



▲ 서울 올림픽 파크텔 손동호 사장에게 감사패 전달



▲ 나라사랑 어머니회의 이희숙, 지희순씨 (왼쪽부터), 오른쪽은 본회 박금옥 사무총장

### 에버랜드

- 놀이기구 탈 때 어지러웠는데 추억이 되었다.
- 움직이는 놀이 기구가 좋았다.
-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구경하고 놀이기구 타서 정말 좋았다.
- 동물도 보고 놀이기구를 타서 즐거웠다.
- 사파리와 동물원 구경이 좋았다.

### 주라기 공원투어 관람

- 공룡들이 신기하게 살아서 남은 게 재미있었다.
- 티라노사우루스가 옆에서 나타날 때 재미있었다.
- 진짜 공룡을 본 것처럼 봤기 때문에 으스스했다.
- 가짜지만 실감이 났다.
- 깜짝 놀라기도 하고 소리가 커서 무섭기도 했는데 재미있었다.
- 공룡이 무섭고 즐거웠다.
-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재미있고 진짜 같았다.
- 직접 눈으로 화석도 보고 공룡 체험도 하니 재미있었다. 무서웠다.
- 재미있고 주라기 공원 선생님 연기가 뛰어났다.
- 타조일에서 공룡이 부화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았다.
- 티라노사우루스가 너무 놀라게 해서 무서웠지만 재미있었다.
- 공룡이 가짜로 만든 것인줄 알면서도 관계자들이 연출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스릴을 느꼈다.
- 공룡보다도 더 실감나는 안내원 등 스릴 만점에 즐거운 시간이었다.



▲ 주라기 공원 투어 중

### 올림픽기념관

- 선수들이 떠오르고 좋았다
- 나는 운동을 안 배우는데 해야 되겠다.
- 신기하고 내 밑에 내 그림자가 떠 있는 것이 좀 무서웠다
- 움직이는 의자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그게 제일 재미있었다.
- 호텔도 좋고 기념관도 좋았다.
- 올림픽에 대해 알아서 좋았다.
- 고대 올림픽, 근대 올림픽을 알게 되었다.
- 운동을 한 위대한 인물과 운동기구가 있었다.
- 재미있고 위대한 사람이 많았다.
- 올림픽 영상을 봐서 재미있었다.

### 전쟁기념관 관람

- 옛날이야기가 신기했다.
- 군인 아저씨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 전시물이 다양해서 좋았다.
-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다.
- 옛날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나 알았다.
- 전쟁에 대해 알게 되서 기뻐했다.
- 재미있었고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다.
- 전쟁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알게 되었고, 탱크, 비행기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관한 것은 다 배운 것 같았다.
- 신기하고 가짜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다.

### CJ(주)에서 경험한 베이킹 프로그램

- 쿠키를 만들어서 재미있었다.
- 직접 만들어 보니까 즐거웠다.
- 쿠키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재미있었다.
- TV에 나와 더욱 신났다.
- 쿠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 빵이나 쿠키를 먹지만 하다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좋았다.
- 뉴스에 나와서 좋았다.
- 쿠키를 만드는 법을 알아서 재미있었다.
- 직접 쿠키를 만드니 맛있었다.
- 빵도 만들고 TV에 내 얼굴이 나와 기분이 좋았다.
- 직접 쿠키를 만드니, 내가 빵 만드는 베이커가 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와서 좋았다.



▶ 푸레주르에서 제빵사 아저씨들과 과자만들기 실습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친구들’

##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진이와** 할머니는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살아 갑니다. 할머니의 힘들었던 마음도 혜진이가 많이 풀어주고, 혜진이의 마음도 할머니가 잘 알아주십니다.(아버지의 자살이 아직도 큰자리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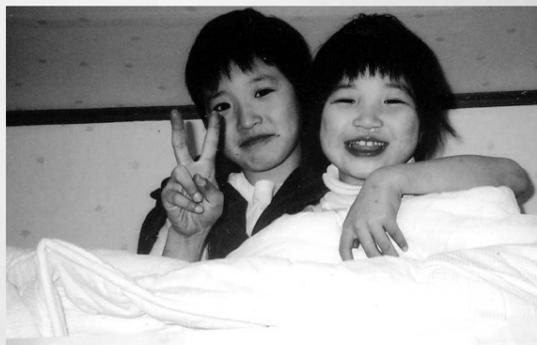
1학년때부터 이곳에 나오고 있는 혜진이는 최근에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공부방에 옵니다. 이곳에 오는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늘 먼저와 나중에 오는 아이들을 맞습니다.

처음 공부방에 나왔을때는 참 많이 힘들게 하더니 조금씩 나아집니다. 폐를 쓰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거든요.

다른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빛된 공부방 송용미 선생님의 편지 중에서〉

☒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연락해 주신 한남동의 최시형 후원자님이 혜진이와 평수의 생활비를 4월부터 매월 지원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평수에게는 여동생과 함께 사용하기위해 꼭 필요로 했던 2층 침대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민이는** 밝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아픈 어른들(아빠와 할머니)을 모시고, 살면서도 밝은 아이입니다.

청소며, 식사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정민이는 그래도 늘 아빠와 할머니 걱정입니다.

가끔 시골에 따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시장을 봐주시는 날이면 반찬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신 할머니는 정민이가 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빠는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활을 합니다.

아빠는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정민이는 꿈이 화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늘 꿈을 갖고 그림을 그립니다.

☒ 정신지체인 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항상 밝은 소녀가장, ‘빛된 공부방’의 정민이와 또다른 어린이 소형이에게 미국 ‘나라사랑어머니회’ 유분자 서부회장님의 연결로 미국 세리토리연합 감리교회에서 생활비를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영이의 부모는** 아버지의 방만한 생활과 사업실패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러 이혼하였다고 한다. 현재 우영이는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를 내고 사는 여인숙에 2년째 장기투숙 중이다.

어머니에게도 부채가 많아 현재도 부채상환 중에 있으며 사는 주소가 채권자들에게 노출될까봐 주소지 이전도 하지 못하고 이전 거주지인 안양시 석수동

에 남겨둔 상태이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영을 만나러 오고 있으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밤에 일을 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우영이는 오후 7시쯤 공부방에서의 일과가 끝나면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저녁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퇴근한 엄마를 아침에서야 만나고 있다.

**미연이는**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주눅이 들어 있고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편부가정이 대개 그렇듯 청결상태나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며 아버지가 늘 늦게 귀가하며 동생 미애 돌보기 등 대부분의 가정살림을 미연이가 다 맡아한다.

“이 자매의 웃음꽃에는 아픔이 함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쪽 아빠 손에 자라왔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없는 이 아이들의 모양새는 늘 후줄근합니다. 가을 코스모스 같이 가느다란 몸에 피죄죄하게 때가 낀 옷에 낡은 운동화, 형클어

진 머리 등... 엄마가 없는 태가 납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아침을 굶고 학교에 가는 날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동생 미애의 기억 속 엄마는 그 얼굴조차 가물가물하고, 동생보다 훨씬 더 엄마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 미연이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고 맙니다.

그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힙니다. 이 자매의 웃음꽃 뒤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픔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의 웃음꽃다발을 받으면 항상 제 가슴에 싸한 아픔이 남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웃음꽃을 피우고 날릴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며 공부방과 저의 존재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

〈한무리 나눔의 집 공부방 박광해 선생님의 추천편지 중〉

☒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부목사님께서 한무리 나눔의 집 공부방의 위에 소개된 우영이와 미연이, 그리고 강민숙, 김영오 아동의 교육비를 4월부터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개별 후원자를 찾습니다

개별 아동을 후원할 분은  
‘사랑의 친구들’(02-777-5075~6)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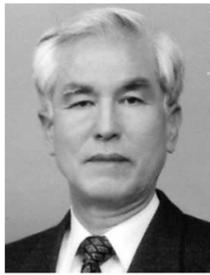
저는 00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이 함께 삽니다. 아빠는 오리공장에 다닙니다. 형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열린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바이올린도 배웁니다. 재미있습니다. 저는 커서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만수의 편지 중에서〉

만수는 부모가 모두 농아이어서 생활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이가 소극적이고 누구에게든지 자기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몸이 약한 그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만수의 학원비를 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경찰관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정수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지은이의 용돈과 학습준비물을 살 비용을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모두 여수에 있는 ‘열린 공부방’의 어린이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석차 상위 10퍼센트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은정이 등 경남 마천공부방의 아동들에게도 후원의 손길이 미쳤으면 합니다.



## 고민에 시달리는 친구에게

이성원 (청소년 도서재단 이사장)

“네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받아들이고, 네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감히 바꿔 나가라”  
-에픽테토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Epictetos)

몇 년 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털어놓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고 음식도 잘 넘어가지지를 앓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위의 구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한 말입니다. 본시 노예였던 그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고달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그마저 실패하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목숨까지 버릴 각오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오랜 세월 끝에 그는 대철학자가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왕의 스승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Enchiridion Epicteti”라는 「어록」을 남겼는데 그 속에 이제까지 인류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고민해법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고민의 92%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기왕 못 바꿀 바엔 고민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자” -

우리 고민의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다. 과거사는 고민해도 바뀌지 않는다. 또 4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것이다. 미래사도 고민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고민의 10%는 나의 타고난 신상에 관한 것이다. 키가 작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부모형제가 못 마땅하다-이런 나의 사주팔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고민의 12%는 남들의 비판에 대한 것이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남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고민의 92%나 된다. 그렇다면 이 92%를 우리 고민 리스트에서 빼자.

그리고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나머지 8%의 고민거리- 일찍 일어나자, 담배를 끊자, 가족을 더 사랑하자- 이런 일들에 전심 노력하면 결국 우리 고민거리는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 대개 이런 것이 에픽테토스의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그래, 이번 내 부도사건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자. 세상에 한번 부도난 돈이 돌아온 적이 있었던가. 기왕 못 돌아 올 바엔 고민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자- 여기 생각이 미치자 순식간에 꽉 막혔던 속이 시원히 뚫리더니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 한마디가 하마터면 빠질뻔한 무간지옥에서 나를 건져준 것입니다.

귀형도 한번 에픽테토스의 길을 따라 지금의 고민에서 속 시원히 탈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P.S. 나중에야 나의 부도사건이 IMF의 효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영문을 몰라 「부도유예법」을 만들어 돈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덕분에 내 돈도 말뚱말뚱한 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랑의 책 나누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와 '사랑의 친구들' 이 함께 하는 'WE START' 운동의 하나

'사랑의 친구들'은 중앙일보와 함께 We Start운동의 일환인 '사랑의 책나누기'를 시작한다. 전국의 400여개 빈곤지역 공부방과 We Start마을, 어린이 쉼터, 아동임시 보호소 등 시설에 6월 말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까지 기관당 어린이서적 50권씩 전달할 계획이다. 약 3만권에 이를 책들을 고르고 나누어 포장하여 보내기위해 서초구의 협조로 서초구 엽곡동 주니어센터 1층의 전시장을 이용케 되었다. 택배 등 물류비용은 한진택배에서 후원한다.

'사랑의 책 나누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의 삶의 출발을 도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We Start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로 빈민지역 무료 공부방의 교육과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앞으로는 독서지도를 병행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의 감상문을 모아 포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신청기간  
6월 25일-7월10일(예정)

- 접수방법
1. www.friends.or.kr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또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E-mail(folove831@korea.com)로 보낸다.
  2. 전화 (02-777-5075~6) 또는 E-mail(folove831@korea.com)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는다.
  3. 검토 후 선정된 단체는 연락을 받은 후 서적 50권(직접 수령 및 한진택배)을 받는다.
  4. 받은 후에는 받았다는 메시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감상문을 우편 또는 e-mail로 보낸다.

### '사랑의 책나누기' 지원 참여 출판사 명단

- |           |          |
|-----------|----------|
| - 계림북스쿨   | - 소년한길   |
| - 교학사     | - 시공주니어  |
| - 국민서관    | - 아울북    |
| - 길벗어린이   | - 아이세움   |
| - 꼬마샘터    | - 예림당    |
| - 랜덤하우스중앙 | - 웅진닷컴   |
| - 마루별     | - 위즈덤북   |
| - 문지어린이   | - 을파소    |
| - 문학동네어린이 | - 작가정신   |
| - 미래엠엔비   | - 주니어김영사 |
| - 바다출판사   | - 토토북    |
| - 베틀·북    | - 푸른숲    |
| - 봄봄      | - 한국프뢰벨  |
| - 비룡소     | - 해와 나무  |
| - 사계절     |          |
| - 삼성출판사   | <가나다 순>  |

###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시작을! We Start 나눔장터 참여

'사랑의 친구들'은 6월 27일 서초문화예술 공원에서 열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시작을!" We Start 운동의 나눔 장터에 참여한다.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We Start '사랑의 책 나누기'를 함께 하는 본회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것에 동참하여 베희시장에 참여한다.

## 빈곤지역의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사전캠프 교육

(사) ‘사랑의 친구들’은 여름방학동안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60명을 대상으로 사전캠프를 실시한다. 6월 28일(월)~ 7월 1일(목)까지 3박4일간 경기도 기흥의 청려수련관에서 열리는 이 사전캠프 교육은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캠프운영의 노하우를 배우도록 한 것. 빈곤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고 소중한 자신과 상대를 인식하여 삶의 용기와 꿈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청소년 놀이 문화 연구소 소장인 전국재 박사의 지도로 공부방 교사들이 자신의 캠프지도력을 점검하고 직접 실습해 보아 경험을 통해 캠프운영 노하우를 몸에 익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7	기상 / 세면			
8	아침식사			
9	만남과 사귀기 1 (relationship building games)	만남과 사귀기 2 (relationship building games)	신나는 우리 공부방 캠프 만들기 (super vision)	
10	캠프 지도력 (camp leadership)	프로그램 작성실습 (camp programing)	종합 평가 및 토의	
11	점심식사			
12	여는 모임			
1	만나서 반가워요 1 (ice breaking)	캠프놀이 실습	모험·도전놀이 (adventure challenge therapy)	닫는 모임
4	만나서 반가워요 2 (initiative games)			
5				
6	저녁식사			
7	만남의 축제 (축극)	민국 박람회 (축제의 밤)	모닥불 곁에서 (camp fire)	
8	stunt & skits)	Hot Seat		
9	하루를 보내며(모둠별 풋볼 모임)			
10				
11				

다음은 6월 17일까지의 신청자 명단이다.

### 1. 일반신청자 (총 22개 기관, 31명)

- 구세군 여주공부방(한미영)
- 원주자활후견기관 청소년공동체 '눔'(안희정)
- 양지햇살공부방(최광호, 이승호)
- 낮은울타리공부방(이수진)
- 비영리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신나는집(강수은)
- 사랑의공부방(김준영, 서기수)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그루터기, 꼬마또래공부방(황혜영)
- 노루목공부방(신현숙, 조원행)
- 새울공부방(최현남)
- 스스로, 함께 지역아동센터(조대훈, 양우진)
- 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방(성태숙, 조정란)
- 중앙파랑새학교 지역아동센터(이상원)
- 제천 가톨릭사회복지관 아하공부방(이민호)
- 마음터공부방(박경숙)
- 꿈터공부방(함인숙)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보라)
- 희망공부방(최윤하, 이재욱)
- 미래를여는아이들(김소현)
-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박현이, 이순화, 왕강희)
- 마을속 작은학교(이정숙)
- 부스리기사랑나눔회(이화선, 함인선)
- 소망공부방(이경석)

### 2. 연합캠프 선정기관 신청자 (총 17개 기관, 18명)

- 태전공부방(김형달)
- 동심공부방(강계숙)
- 한빛공부방(신지혜)
- 한우리공부방(최선영)
- 강동꿈나무학교(박영선)
- 성남꿈나무학교(김경희)
- 옥곡공부방(박영란)
- 태인공부방(이상규)
- 신나는신나는집(원미원)
-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부설 즐거운학교(이현숙)
- 구세군지역복지센터부설 꿈바라기공부방(강태식)
- 해맞이학교(안명주, 김군자)
- 새소망공부방(유영미)
- 지역아동센터밀알공부방(김길식)
- 임마누엘공부방(김정환)
- 남해대교공부방(김성민)
- 햇살공부방(김윤정)

##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 총69개 공부방 1,180명의 어린이들에게 캠프의 기회를

단체명	대표공부방명	지역	참여기관	참여인원	사업명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늘사랑교회내 늘사랑공부방	전남	11	170	2004년 전남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합캠프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신나는신나는집	성남	11	220	나는야 바다환경 지킴이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예술신나는집	경남	20	300	비전 꿈나무 여름캠프
공동육아 공부방	해송어린이동지공동체	서울	5	120	가자! 자연의 품으로, 너와 내가 함께!!!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늘푸른공부방	경기	10	200	"자연을 마시자, 미래를 품자"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두레공부방	충북	12	170	2004 우리들의 이야기
총계			69	1,180	

(사) ‘사랑의 친구들’은 올해 빈곤지역의 어린이를 위해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캠프를 준비하는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사전캠프와 5개이상의 공부방이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연합캠프를 공모하였다.

2004년 여름에 진행할 캠프로 지난 5월에 공모를 시작하여 총 12개 연합기관에서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거쳐 총 6개 연합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과 캠프 내용은 상단의 표와 같다.)

빈곤/실직/결혼 가정의 아동들은 대체로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학습능력이 뒤떨어져 어느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욕구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연합 캠프 프로그램.

공부방이 연합한 연합 캠프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캠프준비의 어려움을 효율화하고 개별공부방은 진행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공부방 아동들 및 각 기관간의 공동 네트워크로 다양한 협조체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이번 공모사업의 의의가 있다.

### 사랑의 음식나누기 7기 선정기관 (총 26개 기관)

- ▶서울 : 강서밝은공부방(2665-1995)  
백합공부방(438-9573)  
참 신나는 학교(744-4048)  
나누리공부방(892-0109)
- ▶경기 : 북음자리공부방(032-679-5758)  
양지햇살공부방(031-321-9176)  
주안애공부방(031-403-0425)  
현덕지역아동센터(031-683-9838)  
한우리나눔의집(031-453-9603)
- ▶경북 : 샘터방과후스쿨(053-854-9396)
- ▶부산 : 꿈나무공부방(051-415-6351)  
사랑빛공부방(051-893-2690)
- ▶전북 : 완주유니콘공부방(063-261-4266)  
진안사랑공부방(063-432-9939)
- ▶충남 : 새금산공부방(041-754-0613)
-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  
동심공부방(031-765-8844)  
산성공부방(031-764-3265)  
한빛공부방(031-765-9193)  
한우리공부방(031-769-8301)
- ▶대전지역공부방연합회 :  
대전열린지역아동센터(042-582-9676)  
보문공부방(042-255-6962)  
섬나의집씨알학교(042-622-3389)  
중구산성청소년공부방(042-585-0304)
- ▶충북공부방연합회 :  
괴산자연공부방(043-832-7146)  
도화늘푸른공부방(043-651-3377)  
송연꿈나무공부방(043-833-8046)

# (사) '사랑의 친구들'의 활동

- 3. 2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9차 지원 - 21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3. 8 회지 15호 국내 총 6,079부 발송
- 3. 9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0차 지원 - 24개 기관, 4팀 배달봉사 /성북한마음공부방, 즐거운 공부방 추가지원
- 3. 10 지정선씨 : 이불 4채, 수건 등 기증 (한우리 공부방에 전달)
- 3. 16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1차 지원 - 21개 기관, 4팀 배달봉사 /성동공부방(컴퓨터 5set 포함), 한우리 공부방(이불, 수건포함) 추가지원
- 3. 18 '2004년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 (총 27개 공부방)
- 3. 19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후원  
3개 공부방에 이동 후원 추천 의뢰 : 빛된공부방, 여수열린공부방, 한우리나눔의 집 공부방
- 3. 22 제60차 운영위원회
- 3. 23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2차 지원 - 24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빛된 공부방 추가지원
- 3. 30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3차 지원 - 20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4. 1 후원자 최시영씨 - 빛된 공부방 소속 어린이 총 2명 (김OO, 남OO) 후원확정
- 4. 2 (주)도움과나눔 모금관련 열린강좌 참여 - 사무총장
- 4. 6 사전캠프 준비회의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4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부목사  
한우리나눔의집 소속 어린이 총 4명 (강OO, 김OO, 이성용, 이OO) 후원확정
- 4. 7 미국 LA 세리토리 연합 감리교회  
: 빛된공부방 소속 어린이 총 2명 (이OO, 이OO) 후원확정
- 4. 9 '2004년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총 13개 공부방 선정
- 4. 13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5차 지원 - 22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보사노인복지센터 그릇류 추가지원
- 4. 14 어린이 개별 아동 후원을 위한 실사 - 빛된공부방
- 4. 16 '도움과나눔' 모금 아카데미과정 참석 - 사무총장 (2004. 4. 16 - 5. 7)
- 4. 17 '2004년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오리엔테이션
- 4. 20 불린티어 21 제11차 자원봉사관리자 아카데미(일반과정) 교육 참여 : 기획홍보부장 (2004. 4. 20 - 5. 25)
- 4. 21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6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꿈이있는푸른학교, 나누리·도담·도림·어깨동무·우리·태전·파랑새 나눔터 공부방 추가지원
- 4. 22 제61차 운영위원회  
'예술가와 친구 맺기' - (사)창무예술원 최해리 편집장 등 공연후원 관련 본회 사무실 방문
- 4. 23 '2004년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방문 행사' 장소답사
- 4. 28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7차 지원 - 22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한우리 나눔의 집 추가지원  
'2004년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방문 행사'  
: 어린이들 선물(모자, 가방, 축구공 등) 후원확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보도자료 총 33개 언론기관에 발송 (4. 28~29)  
'2004년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 총 13개 공부방에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송금

## '2004년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 상담사와의 만남' 한국 심리상담 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사) '사랑의 친구들'은 한국 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인자)와 공동으로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집단 상담을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관하는 한국 심리 상담연구소의 총 8주 프로그램인 '우리가 만드는 좋은 세상'은 공부방 어린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자기 행동을 평가하며,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훈련.

본 '사랑의 친구들'은 이 사업을 계획함에 앞서 지난 1월 전국 123개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부방 교사들은 공부방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실무에 있는 공부방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실시해야 할 시급한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은 13개 공부방의 108명으로 지난 4월 17일 참여 공부방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공부방별 담당 상담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상담이 모두 끝난 후인 8월 8일에는 평가모임도 예정되어 있다.

###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개 공부방\*

꿈이 있는 푸른 학교, 그루터기공부방, 나누리 공부방, 나눔신나는집, 도담공부방, 도림공부방,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 새벽공부방, 의정부 느티나무공부방,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깨동무공부방, 즐거운학교, 파랑새나눔터 공부방, (사)열린사회 동대문 시민회 부설 방과후 열린 어린이교실

- 5. 4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8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5. 6~8 '2004년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방문 행사' (2박3일)  
: 경남·전남지역공부방연합회 총 81명 참여 (어린이 69명/ 교사 12명)  
: SBS 8시 뉴스에 방송 - CJ(주)베이킹 프로그램 (5.7)  
: 기사보도 - 연합뉴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 5. 11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19차 지원 - 22개 기관, 4팀 배달봉사  
'2004년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방문 행사' 설문지 접수 - 경남지역공부방연합회
- 5. 13 Western World Insurance Company로 부터 후원금 수령
- 5. 15 '2004년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 한국 심리상담 연구소  
: 총 13개 공부방에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송금

- 5. 18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20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5. 20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지원 신청서 총 12개 기관 접수  
: 손희자 이사 사임서 접수

## 5. 21 한국은행 의자, 책상 등 기증

한국은행은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책상과 의자 96set, 침대 70개, 책장 180개, 옷장 67개, 세탁기 8대, 방충장비 1대 등을 필요한 곳에 전달해달라고 기증했다. 본회는 이 기증품을 35개의 공부방 등지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샵, 빗자루, 쓰레받기, 칠판, 휴지통, 나프탈렌 등도 함께 지원했다. 한국은행 홍보표, 박영희씨, 합숙소 오문현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5. 24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심사회의
- 5. 25 '2004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21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5. 27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해승어린이동지공동체 실사
- 6. 1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광주지역, 충북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실사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22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6. 2 '사랑의 음식 나누기' 7기 모집 공고 - 홈페이지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 4개 선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6. 4 '사랑의 책 나누기' 관련 중앙일보와 협의
- 6. 7 '사랑의 책 나누기'  
: 행사 장소(서초구 염곡동 주니어센터) 답사 및 결정
- 6. 8 '사랑의 책 나누기' - 헌진택배에 후원요청 및 결정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23차 지원 - 22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민들레흙씨 캠페인' 참여

(사) '사랑의 친구들'은 나눔과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민들레 흙씨 캠페인'에 참여한다.

'민들레흙씨 캠페인'은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매출전표, 일명 '민들레영수증')에 로또캐시백 가맹점이 로또번호를 함께 발행하여, 당첨될 경우 소비자가 당첨금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단체에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나눔문화 캠페인이다.

'로또캐시백 서비스'라고 하는, 로또 캐시백 가맹점이 발행하는 영수증엔 로또복권번호가 입력되어있다.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가맹점이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발행하는 기존의 로또복권과 똑 같은 것이다.

'민들레흙씨 캠페인'은 고객이 받게 되는 당첨금의 일부를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증을 원하는 단체와 기부규모(당첨금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에 대해 고객과 사전협약을 맺어두고, 복권에 당첨되면 이 사전협약 내용에 따라 당첨금 지급기관이 고객과 기증 받는 단체에 당첨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사랑의 친구들'의 회원과 후원자들의 기부단체와 기부내용이 기재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커런트 코리아가 주관하며 참여 단체와 단체 후원인이 참여하는 캠페인 출범식은 6월30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6. 10 제 62차 운영위원회
- 6. 11 제 32차 기획자문위원회  
'2004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전달식 및 약정식
- 6. 13 '2004년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슈퍼비전 참여
- 6. 14 '2004년 공부방 교사 사전캠프' -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와 계약  
'사랑의 음식 나누기' 7기 신청 마감
- 6. 15 '사랑의 음식 나누기' 6기 24차 지원 - 23개 기관, 4팀 배달봉사
- 6. 18 (사)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 새단장  
'사랑의 음식 나누기' 7기 총 25개 선정기관 공고
- 6. 25 '2004년 결식아동들이 사랑의 바자한마당' 제자 준비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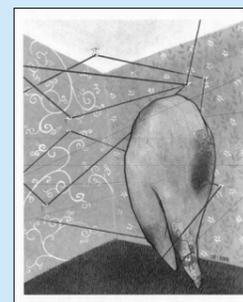
##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 새단장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의 책 나누기'를 신청은 홈페이지에 직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로도 더욱 친근하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간으로 나오고 있는 지회 회지도 새롭게 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신입회원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회원가입명단  
백형순, 박병곤, 강태형, 이은숙, 최점범, 고현철, 이길선, 김태성, 이준호, 박은영, 박은성, 김선경, 김동령, 김시은, 함정원, 이미대, 김경화, 양태석, 윤군자, 윤서석, 박진영, 공영자, 김성미, 이윤희, 노라노, 장명숙 (이상 26명)

## 창무 국제 예술제에 공부방 어린이 초청



제12회 창무국제예술제 연(劇)위의 춤  
Dancing on the Stage - The 12th Changmu International Arts Festival  
June 17, July 4, 2004 - Hoam Art Hall - The Post Theater

(사) 창무예술원(이사장 김매자)이 주최하는 제 12회 창무 국제 예술제에 공부방 어린이들이 초대되었다. 신촌 포스트 극장과 호암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 예술제는 6월 17일부터 7월3일까지 계속된다.

공부방 어린이들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3회의 공연에 초대받았다.

초등학교 5학년이상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등 20여명이, 일요일, 5시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공연 후, 간식을 나누며 무용가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예술세계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날짜는 6월 27일(일)/컬트코젠, 이고은, 이지연씨  
7월 4일(일)/박소정, 야마다, 홍은주씨  
창무의 홈페이지는 www.changmu.org이다.